

## 종합·해설

# 도심 공유지·학교 곳곳 텃밭갈이

■ 정부·지자체 '도시 농업 육성' 본격 추진

## 야산 무단개간·멧돼지 습격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도시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신선체소를 기르는 '도시 농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도시농업법이 시행됐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주말농장과 도시텃밭에 대한 규정과 규제완화,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이 도시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농사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도시농업 확산에 따라 도심 야산의 무단경작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도시농업 본격 지원=농림수산식품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도시농업의 행위, 도시지역의 범위,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은 '도시농업의 유형,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안은 도시농업의 행위를 상업적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의 범위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규정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우선 5년 단위의 종합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돼 정부차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각 지역별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가 지자체와 기업의 공

영 및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에 자금과 토지를 지원하고,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시도 본격 추진=광주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시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광주 북구와 서구,

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부작용 우려=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뒤따를 수 있고, 이로 인한 산사태 위험도 우려된다.

여기에 유해조수인 멧돼지 등이 먹이를 찾기 위해 도시텃밭까지 내려오면서 유해조수의 공격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이 유휴공간에서 즐기고 체험하기 위한 것이지만,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체험이 많이 줄어들고, 채소류 가격 하락 등이 우려된다.

또한, 도시농업을 위한 표준자재 공급도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일부 자재는 잘못 사용할 경우 농약도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채소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도시에서 재배하는 만큼 불안감을 해소하고 채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심기 재밌어요" 6일 나주 남평에서 열린 전남농업기술원 주최 손모내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모를 심어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국민 만평

- 김종우



## 대선 앞두고 안보 쟁점화

### 李대통령 연일 종북세력 비판 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 추종 세력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7회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현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도 있지만, 전쟁이 나면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비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충일 추념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론적 언급이라도 평가도 있지만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감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국가안보 대북관을 둘러싸고 이른바 '종북세력'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는 논란에 휩싸인 의원들

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이 대

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북세력을 겨냥한 이 대통

령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라디오연설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5일에는 국가 유족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선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이념 노선을 뚜렷이 함으로써 안보 문제를 징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앞

다퉈 색깔론, 공안정국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문제

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안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색깔론 뒤집어씌우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신이 나가도록 단단히 나간 모양"이라며 "현재 정권이 되고 있는 종북 논평과 주사파 논평은 2008년 2월 민노당이 분당되면서 제기됐던 것"이고, 또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이 불거지면서 통진당 내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을 갑자기 색깔론이라며 (새누리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한상제주 봄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특전1. 특식(진복해물전골+전복회+옥동구이) 특전2.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209,000~**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69,000~**

**왕복 2박3일 (일반호텔) 1인 ₩139,000~**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 골프 패키지 (월화수출발 / 목요일출발 1인 1만원추가 / 4인이상 1조 출발)**

**크라운or더클래스 + 스카이힐 ₩329,000~**

**블랙스톤or세인트포 + 라운 ₩419,000~**

**여행사 파트너 모집**

**한국제주 여행문화**

**광주/전남 T.062-675-0064**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